Eugene's FICC Update (2022.9.29)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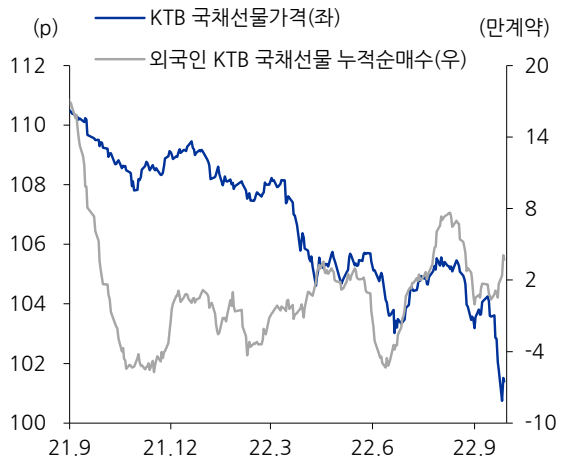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76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틱)

		9/2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4.338%	3.4	49.1	254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32%	12.4	44.1	208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-0.6	-9.6	4.4	45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1.40	-11.0	-143.0	-771
	10년 국채선물(LKTB)	105.15	-128.0	-380.0	-1913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35%	-14.8	9.9	340.9
	미국채 10년물	3.734%	-21.2	20.5	222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40.1	-33.7	-50.7	78.6
	독일국채 10년물	2.117%	-10.9	22.9	229.8
	호주국채 10년물	4.093%	7.1	45.8	24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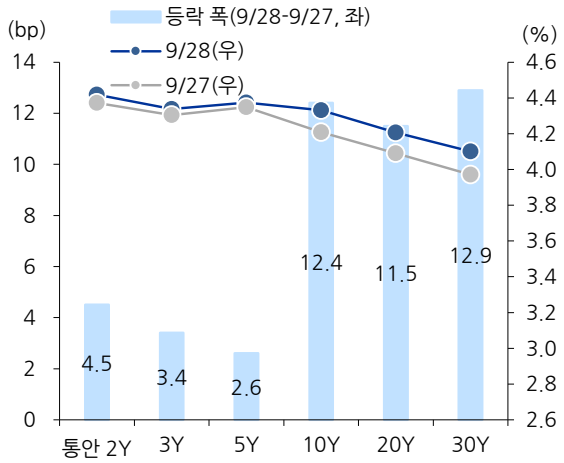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개입에 단기물 위주로 약세폭을 줄이며 마감.
- 영국 사태에 개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한 금리는 원/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되며 불안한 흐름을 보임.
- 오후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고, 기획재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안정됐으나 강세로 전환하지는 못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과 QT 연기 발표에 금리 급락. BOE는 10월 14일까지 장기국채를 매입하고, 당초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던 QT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. 최근 예산안 발표 후 영국 금융시장 혼돈이 글로벌 변동성의 원인이 되자 내린 조치.
- BOE는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를 최대 50억 파운드 규모로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매입이라고 언급.
- 금일 ECB 부총재와 관련 인사, BOE 부총재 등 연설과 독일 9월 CPI 예비치 예정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$)

		9/2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39.90	1.3%	3.3%	21.1%
	달러지수	112.71	-1.3%	1.2%	17.8%
	달러/유로	0.974	1.5%	-1.0%	-14.4%
	위안/달러	7.16	-0.2%	1.2%	12.5%
	엔/달러	144.22	-0.4%	0.1%	25.3%
	헤알/달러	5.38	-0.1%	3.9%	-3.5%
상품	WTI 근월물($)	82.15	4.6%	-1.0%	9.2%
	금 현물($)	1,659.82	1.9%	-0.8%	-9.3%
	구리 3개월물($)	7,479.00	1.7%	-2.7%	-2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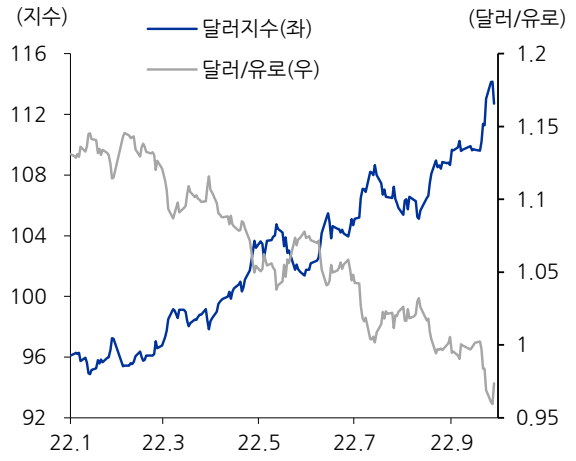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유로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+18.40원 급등한 1,439.90원에 마감.
- 간밤 달러 강세 영향으로 1,425원 선에서 개장 후 오전 중 꾸준히 상승해 1,440원 선에 근접. 연준 긴축 경계감, 영국 예산안 사태에 이어 노드스트림1 누출 사고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재차 확산.
- 오후에는 끝내 1,440원을 상회했으나 당국 개입 물량에 1,440원 아래에서 마감.
- 이날 역외 위안화 환율은 7.265 위안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. 유로화도 아시아 장중 0.953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가 가팔랐음.

전망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BOE의 시장 개입으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완화되며 112.7까지 하락.
- BOE가 미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힘. 다음주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적 긴축도 10월 31일로 연기.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-50bp 하락. 미국 10년물 금리도 -20bp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가파른 약세를 되돌림.
- 그러나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. 파운드화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.